

도민 10명중 6명 '나는 서민이다'

전북도, 작년 만15세 이상 5000가구 조사 결과 중산층 18.1% 불과... 낮은 가정경제 상태 반영

도민 10명 중 6명은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도민은 2명만 차지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8월 돼 5,000가구의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 응답자의 61.2%는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도민은 13.3%로 집계됐다. 빈곤층 13.3%를 합할 경우 74.7%가 스스로의 경제생활이 하위권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산층이란 답변은 18.1%로, 부유층은 0.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민의 교육과 보

건, 주거, 환경, 문화 등 7개 분야 69개 항목이 포함됐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6.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높아졌다.

가정생활(68.6점)과 친지·친구와 관계(66.9)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재정상태(53.8%)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분야에서 월평균 교육비(대학교 및 대학원) 10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36만5,000원, 중고등학교 3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분야에서는 학원수강이 74.1%(지출액 34만5,000원)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원 14.8%(4만5,000원), 과외 13.4%(6만3,000원) 등의 순이었다.

장래희망은 공무원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16.4%, 의·약사 6.9% 순을 보였다.

건강관리는 신경을 더욱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아침식사 실천이 73.3%로 지난해 전국 평균 70.1%보다 다소 높았다.

규칙적 운동 역시 지난 2013년 대비 8.5%포인트 증가한 62.3%가 최소 한달 2~3회에서 매일 운동을 한다고 답했다.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영화가 월평균 3.27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물관·스포츠(각 0.36회), 미술관(0.24회), 연극(0.17회) 순이었다.

안전분야에서는 국가안보(41.3%)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위험(33.5%)이 안전분야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답한 2013년과 비교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사드 설치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개발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을 조사지표를 개발해 도와 시·군 공동조사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자활생산물 시·군 순회장터

2016년 전라북도 자활생산물 시·군 순회 전시 판매 장터가 26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게임 아이템 미끼 거액 챙긴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8일 게임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 판매를 미끼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해커 이모(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년간 온라인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에 '공짜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852명에게 악성 프로그램 '고스트렛'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스트렛은 원격제어 및 키로깅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전송받은 피해자들이 파일을 실행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입력한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6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 2012년 12월 부산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패딩점퍼를 판다'고 속여 C씨로부터 31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관·스포츠(각 0.36회), 미술관(0.24회), 연극(0.17회) 순이었다.

안전분야에서는 국가안보(41.3%)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위험(33.5%)이 안전분야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답한 2013년과 비교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 사드 설치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개발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는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을 조사지표를 개발해 도와 시·군 공동조사로 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내달부터 예수병원 서원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았던 예수병원 앞 서원로가 안전한 도로로 개선된다.

전주시는 중화산동 예수병원에서 신일아파트에 이르는 서원로(300m 구간)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은 예수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 인근 신흥중·고등학교와 기전대학교, 예수대학교 학생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급경사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로다.

이에 시는 국비 14억원 등 총 28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연달아 완공을 목표로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예수병원에서도 동의해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35필지(7736㎡)를 전주시에 기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시는 선형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응급환자 긴급수송과 보행자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자동차 출진 10대 입건

무주경찰서는 28일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출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50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노영 기자

전주시 공공도서관 휴식공간 '인기'

지난 해 이용자 수 전년대비 21만여 명 증가

전주시 10개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도서관과 삼천도서관, 서신도서관, 평화도서관, 송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이종도서관, 죽구뜰도서관, 건지도서관 등 10개 도서관에는 지난해 총 389만821명의 시민이 다녀가 지난 2014년(368만9108명)보다 이용자가 21만여명 증가했다.

전주시 10개 시립도서관은 국내서적 96만여권과 서양도서 2,500여권, 다문화도서 5,700여권, 고서 581권 등 총 97만여권의 도서자료와 5644개의 좌석(열람석 2844개)을 갖추고 도서관별로 특색있는 공간을 구성,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정서적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먼저, 완산도서관은 588석의 열람실 등 관내 시립도서관 중 가장 많은 1238석을 갖추고 있으며, 본관 2층에 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 관련 자료와 서적들을 열람

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실을 둔 것이 특징이다.

평화도서관은 일반 도서열람실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지도실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어린이실과 유아실, 동화방 등도 갖추고 있다.

어린이특화도서관을 꾸민 이종도서관은 어린이들이 가상동화구연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유아자료실, 유아실, 어린이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열람실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특히 지난해 총 64만8184명, 하루 평균 1785명이 다녀간 서신도서관은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 일평균 자료대출권수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문을 연 건지도서관도 사립과 생태, 인문학이 하나의 숲을 이루는 생태도서관으로 조성됐으며, 자연친화적인 태양광 랜드마크와 빗물받이 시설 등을 갖춘 에너지절약 건물로 자연환경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노점상·불법적치물 야간단속 펼쳐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품격이 살아있는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 지난 25일 경계교동과 직원 9명, 2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대학로, 전주역 주변 다중이용장소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점상 및 불법노상적치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노점상 9건, 상가에 세워 놓은 좌판 및 파라솔 등 노상적치물 20여건을 정비했다.

또한 도로의 과도한 주차방해용 불법적치물 등에 대해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배부하고 산뜻하고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동부보훈지청 3·1운동 재현

나라사랑 정신 계승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영준)에서는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1999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올해도 전국 57개 지역이 참가하는 등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독립기념행사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김영재기자

전북지역은 3월 1일 남원시 덕과면 3·1만세운동발상지 기념탑을 시작으로 10일 입실 오수초등학교, 12일 전주 신흥고에서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

전주 3·13 만세운동은 3·1 독립만세운동 거사를 전례 들은 개신교 교인들과 신학교, 기전여고 등 학생들이 주축을 이뤄 전주를 장날인 이날 독립만세운동을 일제히 전개했다.

만세운동 시위에 나선 임영신, 최경애, 최금숙, 함연춘, 정복수, 송순이, 김신희, 최요한나, 강정은, 김순실, 김나현, 김광순 등 학생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해 일제에 구속, 기속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